길어지는 겨울방학, 또 다른 고민

도교육청, 졸업생 생활지도 등 지속 관심 당부

다수의 도내 학교들이 졸업식을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2월과 1월에 졸업식을 치르는 학교가 67개교에 이른다.

이는 초·중·고 총 학교 수 대비 8.7%에 달한다. 가장 빠르게 졸업식을 마친 5개 초등학교의 경우, 12월 말에 졸업식을 치르고, 긴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졸업식 후 2월 등교가 없어진 덕분에 분절 없는 긴 방학으로 자기계발을 환영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 관리에 걱정을 호소하기도 한다.

교사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학년말 업무처리와 졸업식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을 호소하는 교사들과는 반대로 자기계발 연수, 업무분장과 새 학년 준비 등에 최적이라며 충분한 방학을 선호하는 교사들도 있다.

전북교육청은 졸업식이 빨라졌다 하더라도 해당 학생의 학적은 2월 말까지 유효하므로, 졸업생 생활지도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졸업식 이후 학사운영 및 학생관리에 대해 일부 학교에서 문의가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학년말 졸업식 이후 학생 관리에 대한 유의사항'을 각 급 학교와 시·군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졸업의 의미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를 증명하는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해 졸업식을 실시한다. 졸업식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행사의 하나이며, 졸업을 한 경우라도 해당 학생의 학적은 학년말(2월 말일)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조 제1항은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 한다'고 돼있다.

대다수의 학교가 2월을 졸업식이 적기라 판단하는 가운데, 빠른 졸업식을 선호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학교 현장, 졸업식을 포함한 학사일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결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치, 학생 생활지도 등과 관련해 교육공동체의 지혜로운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의사전달 확실한 민주시민 양성 기대

도교육청, 독서교육 활성화 추진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30일 14개 교육지원청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 회의를 갖고 '정확히 말하고 제대로 쓸 줄 아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읽기, 말하기, 글쓰기, 인문교육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22개 세부과제에 8억2천2백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손 안에 책 한 권 프로젝트',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등 읽기 교육과 함께 프로젝트·발표형 수업의 확대, '고등학생 독서토론 캠프', '고등학생 토론 한마당' 등 말하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책 쓰기 동아리, '학생 저자 출간 기념회', 고등학교 글쓰기 워크숍 등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교 인문학 동아리 운영 지원, '고등학생 인문학 콘서트' 등 인문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와 함께 14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토의토론수업, 찬반토론캠프, 동아리 독서캠프, 작가와의 만남 등 50여 개의 프로그램 운영에 6억 3천여만원을 투입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독서교육을 통해 문해력과 자기표현력이 증진될 것"이라며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아이들이 책 속에서 꿈과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 월드옥타 이스탄불 글로벌 취·창업 연수 진행

유럽 진출 가능성과 희망 확인

전주대 LINC+사업단(주송 단장)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월드옥타 이스탄불 지회와 공동으로 2019 글로벌 취·창업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주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유럽 취·창업에 관심 있는 전주대 학생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터키 경제교류 현황과 무역실무, 해외 취·창업 노하우 및 실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대부분의 교육은 현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월드옥타 이스탄불 지회 회원들이 무료 강사로 자원하여 터키 문화와 경제사정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번 연수에 앞서 전주대와 월드옥타 이스탄불 지회는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 개설 및 유럽 취·창업 지원, 전북 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대는 영국 런던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에 산학협력 거점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연수에 참여한 이승찬(대학원 산업디자인전공) 학생은 "동서양의 문화가 살아 있는 터키에서 현지의 정치 경제 상황과 미래를 읽을 수 있었다"라며, "연수를 통해 유럽 진출의 가능성과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월드옥타 이스탄불 지회 정지섭 지회장은 "터키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잠재한 기회의 땅으로써 전주대 학생을 비롯한 한국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정착하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지난 29일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전북대 Start-up LAB 2019'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의 위상 높여

'전북대 Start-up LAB' 성료… 성과 발표 · 시제품 전시 · 명사 특강 등

전라북도 창업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난 29일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전북대 Start-up LAB 2019'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월 전국 5개 대학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대가 선정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1차 년도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것.

명사 초청 특강을 비롯해 실험실 성과 발표, 시제품 전시가 이뤄졌으며, 기술사업화에 관심이 많은 실험실 대학원생 및 구성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명사특강은 전 중소기업청 차장을 지낸 김순철 산학협력중점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다양한 국가 창업지원사업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내용의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 진행된 시제품 전시와 성과 발표에서는 반도체 공정라인의 계측장비, 스마트 미러를 활용한 운동처방 시스템, 식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천연물의약품, 초고효율 방열시트, 폐태양광 해체 공정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템 소개와 관련 시장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전북대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실험실의 연구성과인 기술이 안정적인 사업화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아낌없는 지원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올바른 교육관과 학습 지도 능력 함양한다

전주교대, 교육실습 학교 공모 지정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올바른 교육관 확립과 교수·학습 지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매년 2개의 부설초등학교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실습 협력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실습학교에 배정하는 실습생 수를 고려하여 지정학교 수를 3개교에서 4개교로 확대 요청하였고, 지정학교 조건으로는 실습 운영이 10학급 이상, 교육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ICT활용 교육이 가능한 학교이다.

이에 공모 심사 결과 전주오송초, 전주인후초, 전주우림초, 전주서신초가 지정되어 2019. 3월~2021. 2월(2년간) 부설초등학교와 함께 교육실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우영 총장은 "실습 협력학교들이 교육적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학생들이 실습을 나갔을 때 세심한 지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전주교대는 2월 중에 전라북도 교육청 관계자와 교육실습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 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수산발전 이끈 군산대 실습선 해림호의 아름다운 퇴역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학장 김명준)은 지난 29일 군산항 제1부두(역무선부두)에서 조현수 선박실습운영센터장, 이영범 선장, 이호현 기관장, 승무원, 실습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습선 해림호의 퇴역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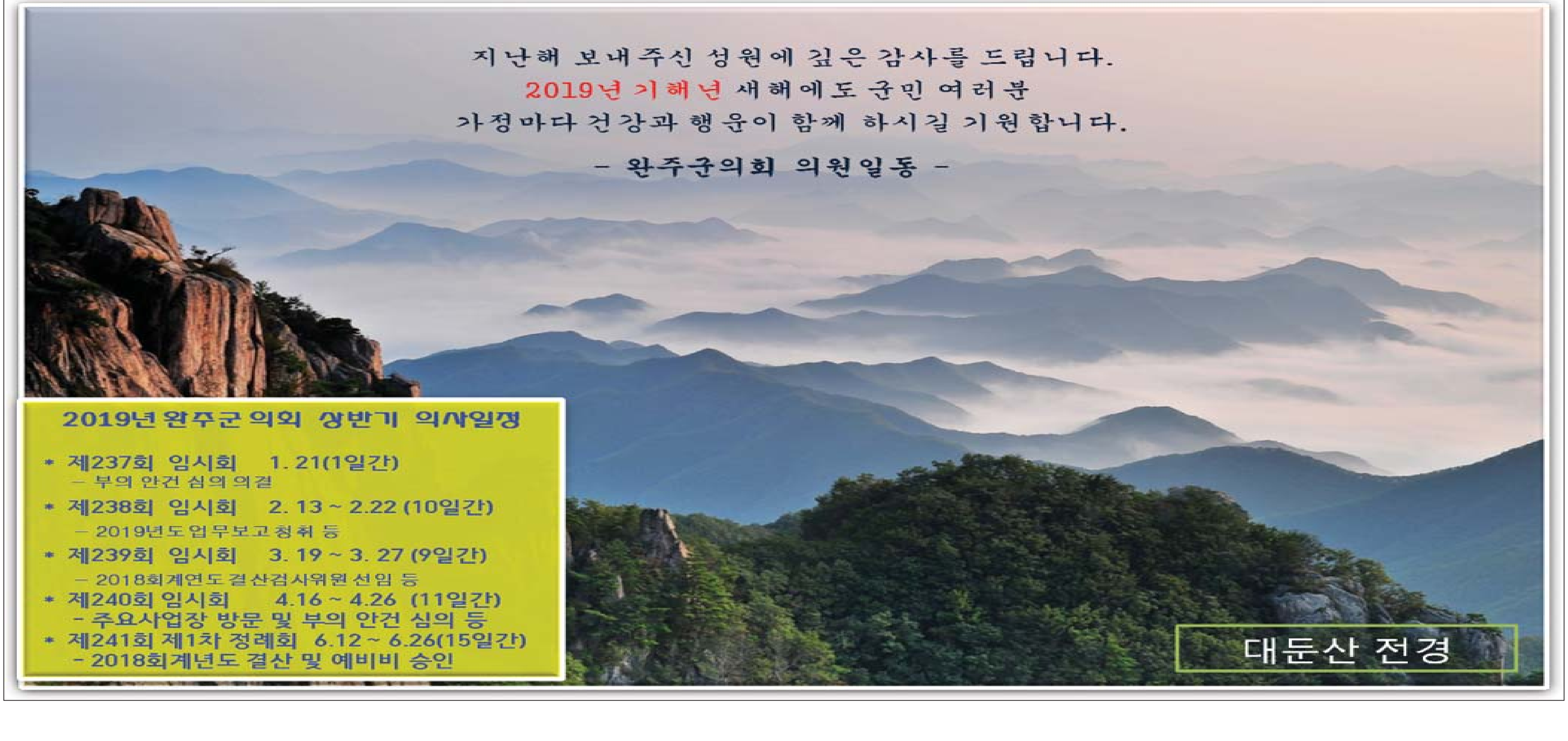
이날 퇴역한 실습선 '해림호'는 1994년 3월 첫 실습 출항하여 올해 1월까지 26년간 군산대학교 원양승선 프로그램 및 실습교육, 전공 교육과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수산발전 성장을 이끄는 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해양과학대학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생 및 수산계 고교 학생 등 총 2,000여명의 해기사를 배출했다.

해림호는 29일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 해양생산시스템 전공 연안항해실습을 마지막으로 26년간의 실습운항을 마치고 퇴역했다.

이날 퇴역식에서 조현수 센터장은 "군산대 총장님 이하 교직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무사고 운항을 하며 많은 해기사를 배출하여 대한민국 해양수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었다"면서 "해림호 선장 이하 승조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은 '해림호'의 대체 실습선으로 새해림호(총톤수 2,996톤)를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다음 달 25일에 인수받을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